

이상네트웍스 (080010)

기업 탐방노트 | Mid-Small Cap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9,450 원
시가총액	852 억원
KOSDAQ (5/7)	753.45 pt

MICE 산업의 선두주자

Analyst 김한경 _ 02 3779 8848 _ hk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05 억원
외국인 지분율	31.6%
절대수익률 (YTD)	26.8%
상대수익률 (YTD)	15.3%
배당수익률 (19E)	0.0%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37.8	38.8	51.1	53.7
영업이익	4.0	6.6	8.0	6.8
순이익	2.7	6.2	8.1	6.4
ROE (%)	4.3	9.1	10.3	7.4
PER (x)	23.0	12.4	9.9	9.8
PBR (x)	1.0	1.0	1.0	0.8

자료: 이상네트웍스,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국내 1위 민간 전시사업자

이상네트웍스는 국내 1위 민간전시사업자로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코베베이비페어, K펫페어 등의 전시회를 주관 및 주최하고 있음. 2018년 실적은 매출액 537억원 (+9.0% yoy) 영업이익 68억원(-14% yoy, OPM 12.7%)를 기록했으며 매출 구성은 전시회 57%, 철강 32%, EC(B2B 상거래) 8% 등. 지난 해 국제 니켈 가격 하락으로 철강 및 EC사업부 부진. 올해에는 전시사업의 성장 지속, 니켈 가격 반등으로 철강사업 턴어라운드 기대

전시사업의 고성장 & 전시장 운영업 신규 진출

1) 전시 사업의 가치 부각: 동사 전시사업 매출은 2016년 186억원 → 2017년 256억원 → 2018년 306억원으로 회사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킨텍스, 코엑스 등의 전시장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한 뒤 전시회를 주최해 참여 기업에게 부스 형태로 판매. 페어 흥행 시 부스 이용료를 올려 받을 수 있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동사가 주최하는 코리아빌드는 국내 전자제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 올해부터는 인테리어 박람회, 클린에어엑스포를 동시에 개최했는데 참가객 수가 급증해 40만명 이상(2018년 18만명)으로 추산됨. 코베베이비페어 역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매년 성장을 지속 중, 육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코베몰 런칭을 통해 B2C 상거래로 영역 확장

2) 전시장 운영업 및 해외 시장 진출: 킨텍스, 코엑스, 벅스코 등 국내 대표 컨벤션센터들의 가동률은 60~70%로 포화 상태에 다다랐음. 전시 공간 부족으로 기존 전시장 증설 및 신규 MICE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동사는 KCC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시장 운영업에 진출, 현재 KCC는 수원 KCC 부지에 7천평 규모 전시장 수원 메세를 건설 중. 해당 시설은 올해 4분기 완공 예정이며 동사가 장기 임대 형태로 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운영할 계획. 내년도 해외 전시장 운영사업도 진출. 동사는 킨텍스와의 합작법인 키넥신을 설립, 인도 뉴델리의 MICE 복합센터 IICC 운영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IICC는 2020년 초 개관 예정이며 향후 20년간 키넥신이 운영을 맡게 될 전망.

이상네트웍스 목표주가 추이	투자 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5.8	변경	김한경									
	2019.5.8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한경)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2% 6.8%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18. 4. 1 ~ 2019.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